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진안군, 인구활력 방안 마련 위한 군민원탁회의 개최

진안군은 지난 18일 군청 강당에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군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생, 학부모, 청년, 귀농·귀촌인 등 각계각층의 65여명이 참석해 열린 토의를 나눴다.

원탁회의의 진행에 앞서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활 인구 진안애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인구정책들이 조금씩 효과

가 나타나면서 2022년말 대비 올해 1분기에 인구가 100명 정도 증가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진안군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 이번 원탁회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유와 인구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진안군 인구감소 원인을 주제로 한 1차 토의 △군민들이 생각하는 진안군을 떠나는 원인과 군에서 계속 거

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2차 토의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등에 대한 3차 토의까지 진행돼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여 동안 치열한 토의가 오갔다.

토의 결과 진안군 인구 감소 주요 원인에 대해 참여자의 43.8%가 일자리 부족, 28.1%가 주거기반 부족, 18.8%가 교육여건 부족을 꼽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분야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청장년을 위한 정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분야로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성된 기부금의 활용처로는 아동·청소년 교육 및 육성사업을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연소 참여자인 진안중학교 2학년 유권혁 학생은 "평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원탁회의에 참여해 그동안 혼자 했던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됐다"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9일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입치마을(추모비 앞)에서는 이기태 열사 추모식이 개최됐다.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무주군, 4.19 혁명 63주년 맞아 영동군과 이기태 열사 추모식

19일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입치마을(추모비 앞)에서는 이기태 열사 추모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영동문화원이 주관하고 무주군과 영동군 등이 후원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 정영철 영동군수와 영동군의회 이승주 의장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과 영동문화원 박승원 원장을 비롯한 유족들과 두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분향과 헌화의 시간을 가지며 이기태 열사를 추모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의를 뿌리내리게 한 당신의 봄이 나라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당신으로 인해 뜨겁게 차오른 가슴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일구

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기태 열사, 당신이 중심에 섰던 4.19는 대한민국을 일군 위대한 열사이며 당신을 낳아 기른 영동과 무주군의 긍지"라며 "당신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고 4.19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태 열사는 충북 영동군에서 태어나 무주초등학교와 무주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희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등 민주항쟁의 중심에 서다 24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무주군에는 이기태 열사의 어머니 김정연 여사가 1968년부터 2015년 고인이 되기 전까지 거주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화상병 개화기 2·3차 방제 총력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현장진단키트 활용 현장진단도 실시

무주군은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약제 살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과수 화상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인 '화상병'은 고온성 세균병으로 5~7월경 발생하며,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면서 잎과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겹겹이 마르게 하는 식물

전염병이다.

이에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에 대한 신속한 방제로 병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농업 도모 위해 화상병 방제약제를 3회에 걸쳐 방제토록 하고 있다.

사업비 1억7,700여만 원을 투입해 949농가 749.3ha 대상으로 2·3차 개화기 방제약제를 오는 30일 까지 개별 방제할 예정이다.

개화기 방제 시기는 꽃이 10~20% 개화할 때 2차 방제 후 5~7일후 3차 방제를 추진하면 화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집중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현장진단키트를 활용한 현장진단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320-2856) 또는 과수화상병 대표 신고전화(1833-857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익산지방국토청 찾아 현안 국도 사업 건의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는 지난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지난달 장수군이 신청한 국도 관련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남북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에 따라 장수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도 13호·19호·26호 개량사업이 제6차



국가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수군은 도로여건이 미비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도 13호·

19호·26호의 개량사업을 위해 꾸준히 전북도와 국가 부처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 지역 국회의원 및 유력 인사 등을 만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부군수는 남궁영 도로계획과장을 만나 장수군의 열악한 도로여건에 대해 피력하고, 지난 5차 때와는 달리 주변 여건과 환경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이번 6차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무주군 적상보건지소,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

무주군이 19일부터 적상보건지소에 '작은 물리치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성·무봉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이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보건지소에 어르신들의 혈액순환과 관절관리, 통증관리에 효과가 있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적상보건지소에는 간섭파치르기, 저주파자극기, 초음파치르기 등 필요한 장비와 시일 등을 갖췄다.

기존에 설치된 건강증진 장비(발마사지기, 안마의자, 건식족욕기, 허리벨트마사지기)와 병행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통증, 관절 관리서비스를 65세 이상 무료로,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1,400원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적상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통증 관리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적상면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농촌 지역으로 근·골격계·퇴행성 질환으로 통증과 신체 손상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진안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도비40%·군비60%)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융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HJ공사나 전북개발공사 등 기관에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자이며,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한 자녀 출산 시에는 3회 연장해 8년, 2자녀 이상 가구는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이며, 관내 대상 주택은 진안고향마을 아파트, 진안에코르 아파트이며 총 6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고령지체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무주군은 고령지체소 무·배추 등에 자주 발생하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 7천만 원의 군비를 들여 방제약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환경이 수려한 무주군은 무봉과 설천면 안성면 등 해발고도 400미터 이상지역에서 배추, 무 등의 고령지 체소를 재배하고 있는 가을철 고품질 김장채소 주요산지 중 하나다.

특히 무주의 고령지 배추는 은은한 단맛이 있고 식감이 좋아 시장의 평가가 높다. 무사마귀병은 무, 배추, 양배추 등 십자화과 식물들이 곰팡이의 한 종류인 무사마귀병균에 감염돼 나타나는 병으로 근류병이라고도 한다.

토양이 산성이거나 토양수분이 과다한 경우, 지온과 기온이 18~25도 일 때 발생하며 증상은 발병 초기 뿌리에 사마귀 같은 작은 혹이 생기고 점차 커지게 되어 잔뿌리의 성장을 막아 배추가 굽어지고 잎이 심하면 고사하게 되는 병이다.

무주=전문선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